

제공일자	2014. 6. 2(월)	담당자	김세중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3775-9115)	연락처	3775-9059	총2매

제목: 이데일리(2014.6.1) “장수채권 도입 시기상조…해외서도 성공사례 없어” 제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이데일리는 2014.6.1.(일) 「장수채권 도입 시기상조…해외서도 성공사례 없어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오는 2016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‘장수채권 (Longevity Bonds)’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.”
 - “장수채권은 생존지수에 연동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방법이지만 영국과 칠레에서의 발행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등 실제 발행한 사례는 없다”고 보도

< 해명내용 >

- “장수채권(Longevity Bonds)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”이라는 상기 기사 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보고서는 ‘장수채권(Longevity Bonds)’ 발행 검토에 대해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음.

- 장수채권의 발행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, 2010년 Swiss Re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발행한 적이 있고 장수 스왑(swap)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유의 필요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